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2		
----	--	------	--	--	--	--	---	--	--

1. (가), (나) 윤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위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윤리적 행위를 위한 보편적 원리를 이론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도덕적 추론을 철저히 검증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 좋음’, ‘옳음’과 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① (가)는 당위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의 탐구를 중시한다.
- ② (가)는 도덕적 관습에 대해 기술하는 것을 본질로 삼는다.
- ③ (나)는 선악 판단의 기준 확립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 ④ (나)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중시한다.
- ⑤ (가), (나)는 도덕적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 모색을 강조한다.

2.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부모 부양은 자녀가 실천해야 할 불변의 도리입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을: 아닙니다. 효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된 만큼 부모 부양 여부도 자녀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부모 부양 문제에 간섭하지 말고 자녀가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 ① 갑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모든 자녀를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부모 부양을 외적 제재로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부모 부양 여부를 자녀가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부모 부양을 불변의 윤리로 여겨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타율적 규제를 통해 부모 부양을 강제해야 한다고 본다.

3.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과학 기술은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학 기술자는 연구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항상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지켜야 합니다.  
 을: 제 생각은 다릅니다. 과학 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주체는 인간이기에, 과학 기술자는 연구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과학 기술과 도덕적 가치를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병: 제가 볼 때 두 분은 모두 ㉠은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는 과정에서는 가치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과학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는 윤리적 가치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① 과학 기술과 윤리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 ② 과학 기술이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③ 과학 원리를 정립할 때 도덕적 가치를 배제해야 한다
- ④ 과학 기술 활용에 대해 과학 기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⑤ 과학 기술의 이론적 정당화와 활용의 맥락을 구분해야 한다

4.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하루라도 자기를 이겨 예(禮)를 행하면 천하가 인(仁)으로 돌아올 것이니, 인의 실현은 자기에게서 비롯되는 것이지 남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A)		
	(B)			

(나) [가로 열쇠]  
 (A): 인격·기술·학문 등을 닦아서 단련함  
 예) 심신을 ○○하다.  
 (B): 유교의 효 실천 방법으로, 자식이 부모를 실질적으로 잘 모시는 것  
 [세로 열쇠]  
 (A): .....개념

- ① 인위에서 벗어나 자연의 도(道)를 추구하는 것이다.
- ② 지혜를 모두 끊고 만물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이다.
- ③ 선악 분별에서 벗어나 꾸준히 학문에 정진하는 것이다.
- ④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다.
- ⑤ 인격 완성과 덕성 함양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5. 고대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벗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덕을 벗하는 것이니, 내세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이가 많음, 지위가 높음, 형제 중 부귀한 사람이 있음을 내세우지 않고 벗해야 한다.  
 을: 사랑할 만한 인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익이나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맺은 우정은 완전한 우정이 아니다. 완전한 우정은 선하고 덕에 있어서 유사한 사람들 사이에 성립한다.

— <보 기> —  
 ㄱ. 갑: 수직적 관계를 전제해야 참된 우정을 맺을 수 있다.  
 ㄴ. 을: 이익 때문에 맺은 우정은 이익이 없으면 사라진다.  
 ㄷ. 갑, 을: 즐거움을 중시하면 어떠한 우정도 맺을 수 없다.  
 ㄹ. 갑, 을: 유덕한 성품을 지녀야 참된 우정을 맺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은 정보 복제에 제약이 없어야 양질의 정보가 생산된다고 본다.
- ② 을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창작자의 배타적 소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정보의 공공재적 성격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공익 증진을 위해 지적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고 본다.

7. 갑, 을 사상가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고자 한다면 육체로부터 떠나야 하며, 영혼만을 사용하여 사물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참된 진리에도 도달할 수 있다.  
 을: 죽음은 삶의 시작이니 누가 그 실마리를 알 수 있겠는가? 태어남은 기(氣)가 모인 것이다. 모이면 태어나고 흩어지면 죽게 된다. 사물은 모두 도(道)에 따라 생겨나고 죽는다.

<보기>  
 ㄱ. 죽음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인가?  
 ㄴ. 죽음 이후에 이상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가?  
 ㄷ. 죽음은 윤회 과정에서 겪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인가?  
 ㄹ. 삶과 죽음의 분별이 없기에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이성적인 존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성적인 존재를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다루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  
 을: 용감한 일을 행해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며, 절제 있는 일을 행해야 절제 있는 사람이 된다. 용기와 절제의 덕은 모자람과 지나침으로 인하여 파괴되며, 중용에 의해 보존된다.

- ① 갑: 인간의 내면적 덕성과 감정을 바탕으로 행위해야 한다.
- ② 갑: 이성으로 보편화 가능한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 ③ 을: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자연적 본성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 ④ 을: 품성적 덕이 아니라 추상적 도덕 원리를 토대로 행위해야 한다.
- ⑤ 갑, 을: 개별적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고려하여 행위해야 한다.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쾌락과 고통의 양은 측정 가능하며, 옳은 행위란 양적인 측면에서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큰 것이다.  
 을: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의 원리에 합의한다.  
 병: 국가가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부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보기>  
 ㄱ. A: 사회적 유용성이 개인의 기본적 자유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ㄴ. B: 절차가 공정하지 않은 분배에 국가의 개입은 허용될 수 있는가?  
 ㄷ. C: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 정당한가?  
 ㄹ. D: 빈부 격차의 완화를 위해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0. 갑 사상가의 관점에서 <사례>와 관련하여 제시할 적절한 견해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선행 조건이며, 동물과 인간의 이익 관심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동물을 희생시켜서 얻는 인간의 이익이 동물의 고통과 비교했을 때 사소한 것일 경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사례>  
 토끼를 상자에 고정시킨 채 실명할 때까지 화장품 재료를 눈에 넣는 실험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실험은 화장품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아님에도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보기>  
 ㄱ. 토끼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므로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ㄴ. 인간과 토끼가 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ㄷ.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들을 실험의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ㄹ. 인간의 이익만을 고려해 동물 실험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노동을 소명이자 구원을 확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했다. 프로테스탄트적 금욕은 자본주의의 노동 생산성을 강력히 촉진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이 단지 잉여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이 됨으로써 노동 소외가 발생한다. 노동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 ① 갑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를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으로 본다.
- ② 갑은 프로테스탄트가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을 반대한다고 본다.
- ③ 을은 공산주의 생산 방식을 노동 소외 현상의 원인으로 본다.
- ④ 을은 모든 노동이 사라지는 공산주의 사회를 이상 사회로 본다.
- ⑤ 갑, 을은 노동에서의 분업을 자아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로 본다.

12. 갑은 긍정, 을과 병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의 모든 행동은 신의 섭리에 부합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신이 부여한 출산이라는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방식의 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도덕하다.  
 을: 쾌락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성이 쾌락을 준다면 생식의 목적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병: 사랑이 없는 성은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 인격의 통합성을 파괴한다. 따라서 사랑이 없는 성은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것일지라도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다.

- ① 사랑이 동반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 ② 성의 진정한 가치는 사랑을 토대로 한 쾌락 추구에 있는가?
- ③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을 위한 성적 관계는 지양해야 하는가?
- ④ 성적 관계의 도덕성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사랑인가?
- ⑤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

13. 다음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인간은 결코 완전히 이성적일 수는 없다.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 집단생활로 진행해 갈 경우,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의 비중은 점점 더 줄어든다. 왜냐하면 집단 간의 공동의 지성과 목적은 항상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며, 또한 집단은 그것을 맹목적이게 만드는 공동의 충동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보기>  
 ㄱ. 개인의 도덕성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ㄴ. 사회 집단들 간의 관계는 정치적이기보다는 윤리적이다.  
 ㄷ.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정치적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ㄹ. 집단의 구성원이 도덕적이면 그 집단도 항상 도덕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개별 생명체는 자기 고유의 선을 향하여 움직이는 단일화된 체계라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을: 신의 섭리에 의해 동물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지어졌으므로 동물을 죽인다고 해도 부정의하지 않다. 병: 쾌락과 고통의 감정, 기억, 자기의 욕구와 목표, 정체성, 자신의 복지 등을 지니고 있다면 삶의 주체이다.
(나)	<div style="margin-left: 20px;">                     &lt;범례&gt;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                 </div>

<보기>  
 ㄱ. A: 인간은 모든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ㄴ. B: 인간은 모든 동물을 지배하고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ㄷ. C: 이익 관심을 지닌 모든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ㄹ. D: 생명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잊힐 권리는 인권 보장을 위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시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한다. 그런데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적인 행적이 인터넷상에 남아 있어서 고통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을: 민주 사회에서 시민의 알 권리는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인터넷상의 기록은 공공성을 지니는 인류의 자산이므로 개인이 원한다는 이유로 삭제해서는 안 되며, 삭제한다고 해도 어딘가에 남아 있어 실효성이 없다.

- ① 인권 보장을 위해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 ② 인터넷상의 기록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
- ③ 잊힐 권리의 보장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
- ④ 인터넷상의 기록은 시민들의 공공 자산임을 깨달아야 한다.
- ⑤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16.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을 찬성한다. 오랫동안 부당한 차별로 고통 받았던 사람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함으로써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고 형식적 평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을 반대한다. 개인의 노력과 성취에 대한 보상보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과거 불평등에 대한 책임을 후대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X: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평등 보장을 중시하는 정도  
Y: 분배의 기준으로 개인의 성취, 업적을 강조하는 정도  
Z: 과거의 차별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을 중시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고도의 기술 발전이 야기한 윤리적 공백 상태에서는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의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① 인간은 예측 가능한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② 현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해 일방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책임의 범위를 인간뿐 아니라 생태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④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이상적인 세계관을 지녀야 한다.  
⑤ 인류 존속이 가능하도록 과학 기술을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18.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양심적인 행위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중략)... 우리가 저항하는 부정의는 평등한 시민의 자유와 기회 균등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다.

① 시민 불복종은 언제나 법률을 준수하며 행해져야 한다.  
②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저항하여 행해져야 한다.  
③ 시민 불복종은 항상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시민 불복종은 효율성을 위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시민 불복종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19.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형 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해악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등가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만 그에게 가해져야 한다.

을: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양도할 자는 없다.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범죄자가 처형되는 장면을 목격하는 데서 생겨나지 않는다. 인간 정신에 가장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 <보 기> —

		형벌의 목적은 응분의 보복이 아니라 범죄 예방에 있는가?	
		예	아니요
사형을 통해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가?	예	A	B
	아니요	C	D

- |   |   |   |   |   |   |
|---|---|---|---|---|---|
|   | 갑 | 을 |   | 갑 | 을 |
| ① | A | B | ② | A | C |
| ③ | B | C | ④ | B | D |
| ⑤ | C | D |   |   |   |

20.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마다 배출량을 할당하고 국가 간에 서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됩니다. 이는 환경 문제 해결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시장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한 배출권 거래는 환경오염에 책임이 큰 선진국들에게 도덕적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견해가 ㉠이라고 생각합니다.

- ① 환경 문제는 시장 논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② 환경 문제의 근원적 책임이 개발도상국에 있음을 모르고 있다  
③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후진국에게만 이익이 됨을 모르고 있다  
④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⑤ 선진국에 의한 환경오염을 정당화시킬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